

# 광복 70년, 우리말이 걸어온 길

남기심

고려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1. 개관

광복 후의 국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국어의 역사적 연구나, 언어 변화의 이론 정립을 위해서가 아니다. 광복 후 70년이라는 시간의 폭을 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전쟁을 겪으면서 농경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 정보 사회까지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해 온 까닭에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대중 언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의 언어 정책이 이러한 대중 언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언어를 통한 대중적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회 결합의 도구로서의 국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회 체제나 구조의 변화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국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전례 없이 큰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한 매체의 변화와 확장, 문자 생활의 대중화나 다양화 같은 전 지구적인 변화도 한몫을 하

고 있다. ‘국어’를 둘러싼 생활 방식, 사회의식도 엄청나게 변했고, 그것은 국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문법, 어휘 체계, 언어 의식 등 여러 언어 분야에서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와 달리 모든 인간관계가 ‘나’와 ‘너’ 일대일의 직접적인 관계로 되어 가면서 국어의 존대법이 완전히 달라졌고, 화법이 갈수록 직설적으로 바뀐과 동시에 언어 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해마다 신어가 대량으로 출현한다. 그 신어들에는 외래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많은 축약어, 준말이 포함되어 있다. 발음도 달라진 것이 있다.

한편, 이런 변화의 와중에도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 국어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 아직도 꽤 두텁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약품이나 전자, 전기 제품과 같은, 각종 제품의 설명서 또는 공공 시설물의 안내문 등에서 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기 어려운 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불편에 무관심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인지는 모르나 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층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광복 후 표준어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다. 1930년대의 지침을 꽤 오래 그대로 지켜 온 것이다. 근래 날이 갈수록 신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주로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어 정책에 변화가 없어도 되는지, 표준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음소의 소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발음이 변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맞춤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표준어 정책이 문법의 변화 현상도 관리해야 할 것인가, 상당수 국민의 부족한 국어 능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

한 검토 역시 있어야 할 것이다.

## 2. 대중 언어의 바뀐 모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는 그동안 언어 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쪽으로, 또 ‘나’와 ‘너’의 일대일 관계 중심의 평면적, 직설적인 화법으로 많이 변해 왔다. 생활 방식의 변화, 전자 통신 소통의 확산 등으로 엄청난 양의 신어가 생겨나고, 문법을 어기는 현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동시에 국어 능력의 향상이 아주 부진한 면도 보인다.

### 2.1. 대인 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른 어법 변화의 예

#### 2.1.1. 상대 존대법의 변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상대 존대의 등급도 두 등급으로 간단해졌다. 격식체의 ‘합쇼’체와 비격식체의 ‘해요’체가 통합되어 존대를 나타내고, 격식체의 ‘해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체가 통합되어 평대를 나타내는 구조로 바뀌었다. ‘하오’체, ‘하계’체는 쓰이지 않는다.

- 격식체-(높임의) ‘합쇼’, ‘하오’:(낮춤의) ‘하계’, ‘해라’
- 비격식체-(높임의) ‘해요’:(낮춤의) ‘해’
- 높임(존대)-‘하십시오’, ‘해요’:안 높임(평대) ‘해라’, ‘해’

#### 2.1.2. 주체 존대법의 변화

“시장이 가까우시니까 덜 힘드시죠?”에서와 같이 간접 존대로 쓰던 주체 존대의 어미 ‘-시-’를 지나치게 널리 쓴다.

- “천원이세요.”, “커피 곧 나오세요.”

### 2.1.3. ‘님’, ‘분’의 확대 사용

공적 관계를 사적 관계로 바꾸어 표현하는 수단으로 과다하게 쓴다. 공적이거나 사무적인 대인 관계를 사적이고 친밀한 사이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 총리님, 대통령님, 기사님, 고객님, 회원님 …….
- 여성분, 가수분, 기사분, 손님분, 중국분 …….

## 2.2. 언어 격식에서 벗어나기 현상

### 2.2.1. 자연스러운 입말투로의 변화를 간판, 상표 등에서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둘째가는 집’, ‘고요한 소리’, ‘또 보자’, ‘벼락 맞은 대추나무’, ‘공 때리네’, ‘여우사이(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자)’, ‘하얀(치과)’, ‘진주순두부’,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쌈(한복 공방)’, ‘처음처럼’, ‘야, 희다!’, ‘살로우만’ …….

예전의 ‘개성상회’, ‘식도원’, ‘녹원가구점’, ‘서울과자점’, ‘철물상점’, ‘문우산’, ‘영창서관’, ‘충주식당’, ‘복지다방’ 식의 공식적인 명사형 간판 언어에서 크게 벗어났다. 관형사(형), 부사(형)의 간판, 상표도 등장했다.

### 2.2.2. 직설적 화법화를 대중가요 가사에서 볼 수 있다

죽장에 샷갓 쓰고 방랑 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짓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푸대접에 깔깔대며 떠나가는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 1955

너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을.  
 안 돼, 니 맘대로 나를 떠날 수 없어. 끝낸다면 내가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너를 만난 건. 너는 사랑 따윈 관심도 없었던 거야. ....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의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명〉, 2000

대중가요 가사가 함축적 표현에서 직설적, 서술적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방랑시인 김삿갓〉에는 한 구절을 명사로 끝맺기도 하는 운문 형식이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에서는 그런 예를 볼 수 없다. 가사 한 구절을 명사로 끝맺는 형식이 서술어를 명시하는 산문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일종의 격식 벗어나기 현상이다.

### 2.2.3. 문법에 없는 표현들

- “이쪽에 앉으실게요.”, “주사 맞으실게요.”
- “저는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효진 교수라고 합니다.”

### 2.3. 어휘량의 빠른 증가, 외래 요소 유입의 가속화

급속한 산업 사회화, 정보 사회화에 따른 새 어휘의 필요에 의해, 또 전산 통신의 보편화에 따른 빠르고 간편한 표현의 필요에 따라 해마다 400~500여 개의 새 단어가 생겨나고 있다(‘맛밥’, ‘얼짱’, ‘랜덤놀이’, ‘꾸레기땀’, ‘열공’, ‘넌치’ 같은 말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신어만 수천 개가 된다. 신어는 합성이나 혼성에 의한 복합어가 반이 넘는다. 이렇게 해마다 생성되는 신어 중 30% 가량이 외국어이고, 그 대부분이 영어 계통이라는 것도 한 특징이다. 외국어의 차용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상반기 대중가요의 가사 1만 어절 중 영어 어절이 2,500여 개가 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외래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되는 신어 중 상당수는 아마도 몇 번 쓰이다가 소멸하고 말겠지만 생명을 얻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어휘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변화는 주로 입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글말에 반영된다.

### 3. 부족한 국어 능력의 달라지지 않은 모습

일반 대중의 국어 능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예도 무수히 많다. 국어의 딱한 현실이다.

다음과 같은 예는 국어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소화기는 초기 소화용이며 소화 범위에만 한합니다. 방사 시 사람을 향해 방출하지 마시고 화재 발생 시에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봉인 줄이 끊어져 안전핀이 이탈되었을 경우 손잡이에 힘을 가하면 약제가 방출되오니 안전핀 체결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수동소화기)
- 초기 분무 상태가 약한 것은 물을 100°C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약 5분 정도 지난 후에 정상적인 분무가 됩니다.(가습기)
- CD-ROM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에 주의하십시오.(컴퓨터)
- 용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냉장고 등의 보존이 편리합니다.(믹서기)
-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강산에, 〈라구요〉 가사 중)
-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김광석,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사 중)
- (재개발 예정 동네 옆을 지나며) “여기 조금 있으면 폐지한대요.”

이와 같은 뜻이 안 통하는 문장, 어휘 능력이 부족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글을 날마다 수없이 보고 듣는다.

#### 4. 국어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인 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른 어법의 변화나 언어 격식에서 벗어나기 현상과 같은 것은 언어 사용의 대중화로 인한 것이다. 사회 제도, 사고방식의 민주화 진행 과정과 나란히, 그 깊이와 비례

해서 진행된 것으로 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국어의 현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 4.1. 표준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줄곧 표준어 정책을 펴 왔거니와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화를 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표준어 정책은 국민 대부분이 문맹이던 시절,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 사회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언어적 차이로 대단히 혼란스럽던 국어를 통일하고 질서를 세운 큰 공로가 있다. 표준어 사정안이 나오던 1930년대에 ‘기차’로도 발음했던 ‘기차’는 ‘긔차’를 버리고 ‘기차’로 표준어를 삼았고, 반대로 ‘희망’, ‘희다’는 ‘히망’, ‘히다’를 버리고 ‘희망’, ‘희다’를 표준어로 삼았는데 그대로 정착됐다. 발음은 [히망], [히대]지만 ‘희망’, ‘희다’의 글자로 시각적으로 정착이 되었다. ‘어디:어딤’, ‘밭:밭’, ‘예쁘다:이쁘다:어여쁘다:예뿌다:이뿌다:어여뿌다’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표준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요즘 [애]와 [에]의 발음상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이 두 소리를 동일하게 [에]로 발음하는 것이다. [애]와 [에]의 통합이 완성되었을 때 ‘제재(하다)’, ‘대체’를 ‘제제(하다)’, ‘테체’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약 이미 정착된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면 한글이 표음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은 이미 ‘희대희대, 문법문뽕, 전세방전세뽕, 박람회[방나뽕, 방나뽕]’에서와 같은 현상이 공식화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아직도 ‘으스스하다’ → ‘으시시하다’, ‘일층, 이층’의 ‘층’ → ‘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으스스하다, 으시시하다, 층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완전한 동의어가 있을 때 그중의 하나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간섭을 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예를 들어 ‘뱀:호랑이’, ‘나귀:당나귀’, ‘쌈쌈이:용도’와 같은 동의어 짝들 중에서 ‘뱀’, ‘나귀’, ‘쌈쌈이’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을 표준어로 사정했던 것은 어휘 체계의 통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인데 ‘호랑이’, ‘당나귀’, ‘용도’도 결국 ‘뱀’, ‘나귀’, ‘쌈쌈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래 다량으로 우리말에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들 중에는 국어의 기존 어휘와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러나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순식간에 자리를 잡고 말기 때문이다. 기존 국어 어휘를 순화어로 내세워 막아 보려는 노력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아직 외국어 단계에 있는 외래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외래어의 사용을 막아 보자는 뜻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떡거리’란 말은 한동안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겪쇠’, ‘묵밭’ 등의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어간이 명사와 바로 결합하는 것은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표준어 심의가 언어생활을 불필요하게 통제한다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다.

근래 해마다 수백 개씩 생겨나는 신어의 상당수가 이런 원칙에 어긋난다. ‘할빠(손자를 직접 양육하는 할아버지)’, ‘얼짱’, ‘초딩’, ‘꾸레기템’ 같은 말들이 모두 ‘떡거리’를 가지고 시비하던 시각에서 보면 단어의 자격을 얻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 표준어 심의의 경직성이 시뻐거리가 될 수 있다.

‘베리다’는 ‘버리다’에서 변형되어 나온 말인데 지금 ‘버리다’는 ‘불필요한 것을 없앤다’는 뜻으로, ‘베리다’는 ‘못 쓰게 되다, 더러워지다’의 뜻으로 분화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베리다’는 항상 ‘버리다’로 고쳐 써야만 한다. 독립된 단어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가랑이, 곰팡이’를 ‘가랭이, 곰팡이’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어나 새로운 표현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추세인 데다가 신어 생산의 주체가 주로 청소년층으로 아무 구속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창조력이 무한하게 발휘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자유로운 놀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 기술, 정보 기술의 발달이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개념들을 낳고, 그것을 표현할 새 말의 필요와 갈수록 다양해지는 관심 분야들이 새 말의 생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신어들 중에 얼마큼이 생명을 얻어 사전에 등재될지는 모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이던 은어들이 꽤 많이 일반 통용어로 정착했던 과거의 사실로 미루어 오늘의 신어 중 적지 않은 수가 일상어의 자격을 얻을 것이 틀림없다. 표준어 정책은 이들을 수용해서 국어의 어휘 체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표준어의 개념, 그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2. 대중의 부족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환경**

이런 변화의 와중에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어 능력의 부족 현상이나 외래 요소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국어 환경의 열등함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가? 바른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곧 아동이 문자를 해독하는 시기부터 각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좋은 읽을거리를 사다리식으로 풍부하게 제공해서 국어 학습 기회를 많이 주는 등 환경을 조성한다면 열등한 문장력, 국어 어휘력의 부족을 외래 요소로 메꾸는 일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어 능력이 형성되는 유소년기 아동의 독서 능력, 독서량, 독서 습관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어 교육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과연 있었는가? 조사는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운 적이 과연 있었나? 더구나 그것을 실행해 본 적은 있었는가? 유소년기 아동의 국어 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 많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읽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국어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국어 교육은 국어 교과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들의 부족한 국어 능력이 그것을 증명한다.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을 측정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기법과 어휘에만 한정되었던 지금까지의 국어 정책의 약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언어 능력 형성기의 아동들, 나아가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 현황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 4.3. 언어 정책은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언어 변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인 “-크게요”의 출현, “글썩이다”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법적인 오류 현상이 실은 풍부한 표현력의 수요, 의사소통 욕구의 다

양화가 불러온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어에 외래 요소가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외래어의 증가가 국어 어휘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라면, 그래서 ‘버퍼링, 빅데이터, 스테디셀러, 홈스쿨링, 보이스피싱 ……’ 과 같은 말들이 초·중등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실리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세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외래어의 유입을 순화어로 대처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몇 십 년 국어가 겪어 온 것과 같은 그런 변화의 동력이 무엇이나 하는 해석에 따라 이들을 오류, 또는 부정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